

『공동번역 성서 개정판』 무엇이 어떻게 개정되었는가

전무용*

1. 머리말

『공동번역 신약전서』는 1972년에 번역이 되었으며, 1977년에 개정이 되었고, 1977년에 공동번역 구약 번역이 완료되면서, 신약의 개정판과 구약이 함께 『공동번역 성서』(1977)로 묶여서 출간이 되었다.

1988년부터 규범문법인 학교문법의 한글맞춤법이 달라져서¹⁾, 국내의 모든 출판물들이 개정된 맞춤법을 따르고 있었기 때문에, 『공동번역 성서』의 한글 맞춤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었고, 그동안 사용하면서 발견된 번역 및 편집상의 오류들도 수정할 필요가 있었다. 또 가톨릭으로부터 공동번역 가톨릭용의 편집을 고쳐달라는 요청이 있었다.

1995년 1월 21일에 가톨릭에서 파송된 위원과, 공동번역 성서를 공식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대한성공회에서 파송된 위원과, 대한성서공회의 번역 책임자가 한 자리에 모여, “공동번역성서개정위원회”를 조직하였다. 추후에 여건이 허락되면, 공동번역을 문화어 맞춤법에 맞게 고쳐서 쓰고 있는 북한측 대표를 위원회에 참여시키기로 하였다. 개정 작업은 1998년 2월 27일에 완료되었으며, 개정의 원칙이 어떤 내용인지는 그 대강의 내용이 “공동번역 성서 개정판 머리말”에 드러나 있다. 이 글에서는 공동번역의 개정 경과와, 각각 어떤 내용들이 어떻게 개정되었는지를 유형별로 밝히고자 한다. 이 글에서는 맞춤법의 문제로 개정한 사안들 중에서 특별히 논란의 소지가 없는 개정 건에 대해서는 중요한 사안이 아닌 한 별도의 설명을 하지 않았다.

2. 개정 이유와 배경

* 대한성서공회 번역실.

1) 『편수자료 II-4』, “한글 맞춤법·표준어 규정·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표기용례), 문교부, 1988년 3월 1일 초판 발행.

2.1. 1988년 1월 19일, 문교부 고시 제88-1호 ‘한글 맞춤법’과 문교부 고시 제88-2호 ‘표준어 규정’이 발표되었다. 1986년 1월 7일에는 문교부 고시 제 85-11호 ‘외래어 표기법’이 발표되었다. 그 이후로 학교의 교과서와 모든 국어사전들과 신문 잡지들과 모든 국내 출판물들이 개정된 맞춤법을 따라 출판이 되고 있다. 공동번역 성서는 1977년에 출간된 것이므로, 개정된 맞춤법을 따라서 본문을 수정할 필요가 있었다.

2.2. 1994년 1월 10일,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에서 “공동번역 성서 재편집 등에 관한 요청”을 대한성서공회로 보내왔다.

2.3. 1994년 2월 26일, ‘대한성서공회’에서 편집 수정을 하기로 하는 답신을 보냈다.

2.4. 1994년 4월 7일,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에서 담당자가 성서공회를 방문하여 공동번역 개정작업에 관하여 논의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개정의 범위: 그 동안 사용하면서 발견된 결점을 보완하는 개정을 하되, 가톨릭쪽 자료(수집)와 성서공회쪽 자료, 추가 연구 검토로 발견되는 자료를 토대로 개정한다.

2) 맞춤법을 교정한다(현재 각급 학교 교과서를 비롯하여 모든 출판물에 적용되는 맞춤법은 문교부 고시 88-1 ‘한글 맞춤법’이다. 『공동번역 성서』는 그 이전의 맞춤법을 따라 적었다).

3) 가톨릭용 성서 편집 순서를 *Nova Vulgata*를 기준으로 하여 고친다.

4) 개정위원회 구성: 신약학자, 구약학자, 국어학자(국어 교정자)로서 가톨릭쪽 2-3명, 성서공회 1명, 성공회쪽 1명, 개신교쪽 1명으로 한다. (조선기독교도련맹에서 출간한 성경이 “공동번역 평양교정본”이라 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상징적으로 북측 대표 1명을 공식으로 두기로 하였다.)

5) 개정 결정은 전원 합의제로 한다.

6) 가톨릭 교회의 출판 승인(Imprimatur)을 받는다.

3. 개정위원회 회의

1995년 1월 21일 제1회 개정위원회에서 위원회 조직을 하고, 이때부터 『공동번역 성서』 개정작업을 시작하여 1998년 2월 27일 제14회 개정위원회를 마지막으로 개정 작업을 완료하였다.

4. 개정 원칙

- 1) 명백히 틀린 것만 고친다(소폭 개정의 원칙).
- 2) 현재의 공동번역 성서와 통용할 수 있게 한다.
- 3) 가톨릭용은 노바 불가타의 순서를 기준으로 하여 재편집한다.

5. 개정 개관

5.1. 소폭 개정의 원칙에 따라, 모든 경우에서 명백히 틀린 것만 고쳤다.

- 1) 고쳐서 본문의 표현이 좀더 부드러워진다고 하더라도, 현재의 번역이 틀리지 않았으면 그대로 두었다.
- 2) 명백한 개선이 아니라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은 공동번역을 존중하여 그대로 두었다.

5.2. 개정 자료는 위원 각자가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고, 이에 관하여 위원회에서 논의하였다. (문체 문제로서 꼭 검토할 필요가 있는 곳은 없는지, 탈자 오자는 없는지, 누락된 본문은 없는지, 등등.)

- 1) 누락된 본문의 체계적인 확인을 위하여 성서학 전공자 2명에게 현재의 『공동번역 성서』를 『개역한글판』과 대조하여 읽도록 하고, 누락 또는 오역 등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 부분만 “대조보고서”로 제출하도록 하였다.
- 2) 보고서는 위원회에서 확인 검토하고 논의하여 개정 본문을 결정하였다.

5.3. 가톨릭용은 노바 불가타 순서를 참고하여 재편집을 하였다. ‘제2경전’을 뒤에 따로 모으지 않고 합쳐서, 현 공동번역 성서(가톨릭용) 초판의 목차 순서대로 편집하였다.

- 1) 노바 불가타를 참고로 하는 편집 교정은 천주교 쪽에서 맡았다(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강대인 부장 재편집 자료 제시).
- 2) 노바 불가타에 있는 다른 본문이나 추가 설명은 반영하지 않았다.

5.4. 맞춤법 교정도 소폭 개정의 원칙에 따라, 최소한의 폭으로, 명백히 틀린 것만 고쳤다.

- 1) 맞춤법의 교정과 오탈자의 수정은 성서공회에서 맡았다.
- 2) 국어국문학을 전공하는 대학원생에게 문교부 고시 제88-1호 ‘한글 맞춤

법'에 따른 교정을 의뢰하였다. (이화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학생 2명)

3) 교정 때 누락된 것이나 잘못된 것은 성서공회 개정업무과 교정 실무자들이 확인하였으며, 천주교 쪽에서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의 문장 교정자가 추가로 검토하였다.

4) 띄어쓰기는 가독성을 고려하여 붙여 쓸 수 있는 것은 붙여서 교정하였다.

5) 맞춤법 교정자가 제기하는 어색하거나 틀린 문장의 문제는 위원회에서 검토하여 선별 처리하였다.

6) 위와 같이 교정한 것을 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확인하여 개정 본문을 결정하였다.

6. 개정 내용

다음에 소개하는 개정 내용은 몇 가지씩 예를 든 것이다.²⁾

6.1. 맞춤법은 문교부 고시 제88-1호 “한글 맞춤법”을 따랐다.

시편 116:3 꼬나불이 > 꼬나풀이

시편 5:6 거짓말장이를 > 거짓말쟁이를

잠언 8:5 푯나기 > 푯내기

욥기 20:13 아까와서 > 아까워서

잠언 22:7 빛장이의 > 빛쟁이의

마태 9:34 빌어 > 빌려

이사 1:11 수양의 > 숫양의, 수염소의 > 숫염소의

이사 7:17 일찌기 > 일찍이

이사 44:25 점장이 > 점쟁이

이사 61:8 댓가를 > 대가를

예레 16:8 잔치집에 > 잔칫집에

6.2. 비표준어는 표준어 규정에 따라 바로잡았다.

창세 14:20 불이다 > 부치다

예레 50:39 샅쟁이와 > 살쟁이와

에제 8:17 돌구어 주었다. > 돌우어주었다.

2) ‘>’ 표의 왼쪽 부분을 오른쪽과 같이 고침.

미가 3:3 남비에 > 냄비에

6.3. 오자, 탈자를 바로잡았다.

이사 40:12 천평으로 > 천칭으로

예레 23:5 일으킨 > 일으킬

요한 2:9 그 술을 > 그 술이

욥기 25:3 ㉔ 26:5 ㉓에서 난하주 내용의 ㉔과 ㉓을 바꾸었다.

잠언 6:22 (21절 끝에 각주 첨가) “6장 22절은 5장 19절 다음으로 옮겼다.”

6.4. 누락 본문을 확인하여 복원하였다.

창세 20:6 “네가 마음에 걸릴 일을 하지 않은 줄은 나도 안다. 그러나 나에게 죄를 짓지 못하게 너를 지켜 준 이가 누구지 아느냐? 너로 하여금 그 여인을 건드리지 못하게 한 것은 바로 나다.

>20:6 하느님께서 또 꿈에 그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마음에 걸릴 일을 하지 않은 줄은 나도 안다. 그러나 나에게 죄를 짓지 못하게 너를 지켜 준 이가 누구지 아느냐? 너로 하여금 그 여인을 건드리지 못하게 한 것은 바로 나다.

느헤 11:5 그 옷대는 아다야, > 그 옷대는 하자야. 그 옷대는 아다야,

시편 102:28 하느님의 종들의 자손은 편안히 살아가고

그들의 후손은 하느님 앞에 굳게 서 있으리이다.

(한 절 전체 누락된 것을 복원함)

예레 27:3 모압 왕과 > 모압 왕과 암몬인들의 왕과

6.5. 오역을 바로잡았다.

이사 9:20 므나쎄는 에브라임을 서로 뜯어먹는구나.

> 므나쎄와 에브라임이 서로 뜯어먹는구나.

호세 2:11 양털과 모시옷을 벗기고, 버리리라.

> 양털과 모시옷을 벗겨버리리라.

오바 1:20 예루살렘에서 사렘다로 > 예루살렘에서 스바랏으로

묵시 8:13 천사들의 불나팔 소리가 > 천사들이 불 나팔 소리가

6.6. 우리말 표현이 잘못되거나 다른 뜻으로 오해할 수 있을 때, 이를 고쳤다.

1) 낱말 수준의 잘못된 표현: “홍해바다”는 “역전앞”처럼 같은 뜻의 말이 중첩되어 있어서 고쳤고, “알아 맞추다”는 “알아맞히다”가 바른 표기여서 바로잡았다.

시편 106:7 홍해바다에 > 홍해에

마태 26:68 너를 때린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 맞추어 보아라.

> 너를 때린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맞혀 보아라.

2) 대명사는 오해될 수 있을 때 실명사로 바꾸거나 본 뜻을 정확하게 옮길 수 있는 다른 대명사로 사용하였다.

지혜 14:17 그들은 그들이 경배하는 왕의 초상을 만들어서

> 그들은 자기들이 경배하는 왕의 초상을 만들어서

지혜 18:21 그는 그의 거룩한 직분의 무기를 들고

> 그는 자기의 거룩한 직분의 무기를 들고

3) 셈 수를 문맥에 맞게 썼다.

바룩 4:28 십 배의 열심으로 그분을 찾아야 한다.

> 열 배의 열심으로 그분을 찾아야 한다.

‘십 배’든 ‘열 배’든 어느 쪽도 틀린 것은 아니지만, 성경이 소리 내서 읽는 책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입말 형태인 “열 배”로 개정한 것이다.

4) 잘 쓰지 않는 조사나 어미는 무리하게 사용하지 않았다.

“나와의”에서 사용된 조사 “-와의”, “그리스도 안에서의”에서 사용된 “-에서의” 등 ‘-의’와 결합된 몇몇 조사는 번역문투에서 가끔 쓰기도 하는 말이어서 틀렸다 하기는 어렵지만, 사전에 하나의 조사로 올라 있지 않고, 전통적으로 사용되어 온 조사의 형태가 아니어서 고쳤다.

시편 132:12 네 후손이 나와의 계약을 지키고

> 네 후손이 나와 맺은 계약을 지키고

호세 1:9 로암미이라고 > 로암미라고

지혜 2:4 누가 우리의 한 일을 기억해 주겠느냐?

> 누가 우리가 한 일을 기억해 주겠느냐?

에페 4:17 소제목: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 생활

>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새 생활

“-에서의”와 같은 표현에 대해서는 특히 이오덕 님이 일본어의 영향이라고 하여 비판한 적이 있다.³⁾ 그러나 필자의 견해로는, 일본어에서도 이러한 어

3) 이오덕, 『우리글 바로쓰기』, 한길사, 1989년, pp. 85-145.

법은 인구언어와 접촉하면서 새로 생겨난 어법이라고 생각한다. 어쨌든 이러한 어법이 자연스러운 우리말이 아니라는 이오덕 님의 견해는 타당한 것이다. 우리말이나 일본어는 서술어 중심의 언어이다. 이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영어를 포함한 인구언어는 명사문의 특징을 띠고 있는 언어이다. 위의 예문들에서 보듯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 생활”은 명사가 명사를 꾸미는 전형적인 명사문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새 생활”이라고 하면 ‘-의’의 내포적 의미인 “사는”이 살아나서 관형절로 안긴 문장이 되었다. 우리말의 특성에 잘 맞는 표현은 후자와 같은 문장이다.

5) 문장 수준의 오류.

이사 60:10 귀여운 생각이 들어 너를 가엾게 본 때문이다.

> 귀여운 생각이 들어 너를 가엾게 보았기 때문이다.

예제 7:1 끝이 가까왔다 > 끝이 가까이 왔다

즈가 7:6 내 앞에서 먹고 마실 적에도 전혀 너희끼리만 먹고 마시지 아니하였느냐? > 내 앞에서 먹고 마실 적에도 너희끼리만 먹고 마시지 아니하였느냐?

유딧 13:20 이와 같은 당신의 성취한 일들을,

> 이와 같이 당신이 성취한 일들을

지혜 7:11 지혜 속에는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재물이 있었다.

> 지혜 속에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재물이 있었다.

마르 3:31 소제목: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형제이냐?

> 누가 내 어머니이고 내 형제들이냐?

특히 한국 교회에서 오랫동안 잘못 사용해온 어법 가운데 하나가 “가까왔다”는 말이다. “가깝다”는 말은 형용사이다. 형용사에 “-았/었-”을 붙여서 사용하는 것은 틀린 것이 아니다. “아름다웠다, 고왔다, 예뻐다” 등과 같은 표현은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다. 이는 말하는 이가 스스로 경험한 과거의 어떤 상태를 나타내는 말이다. “가까왔다”를 “다가왔다”처럼 사용할 수는 없다. “다가오다”는 동사이다. 예제 7:1을 “끝이 가까이 왔다”처럼 개정한 것은 한국어의 어법에 맞게 표현을 바로잡은 것이다.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형제이냐?”와 같은 표현은 하나의 주어 아래 ‘-며’로 연결이 되어서, 내용상 누가 어머니인 동시에 형제인지를 묻는 이상한 말이 되었다. “그는 시인이며 교수이다”⁴⁾ 하면, ‘-며’가 동시적인 내용임을 나타낸다. 여기서는 연결어미 ‘-고’를 써야 할 곳이다.

4) 『표준국어대사전』, 2129쪽, ‘-며’ 항 참조.

6) 낱말 수준의 오류: “축복”이 틀리게 사용된 곳을 고쳤다.

창세 39:5 야훼의 축복 > 야훼의 복

출애 20:11 안식일을 축복하시고 > 안식일에 복을 내리시고

레위 7:13:15 받은 축복이 > 받은 복이

신명 11:26:29 축복 > 복

신명 12:15 축복해 주신 대로 > 복을 내려주신 대로

시편 28:9 유산을 축복하소서 유산에 복을 내리소서

시편 37:26 축복을 받으리라 > 복을 받으리라

시편 147:13 백성을 축복하시니 > 백성에게 복을 내리시니

“축복”의 오용 문제는 종종 논란이 되는 것이다. ‘축복(祝福)’은 복을 빈다는 말이다. “‘갑’이 ‘을’을 축복하다”와 같은 말은 “‘갑’이 ‘을’을 두고 하나님께 복을 비는” 것이다. 복을 내리는 주체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복을 내려주시는 분이며, 하나님이 제 3의 어떤 대상에게 복을 빌지는 않는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축복하다”는 잘못 사용된 말이다. 제사장이나 목사가 다른 사람의 복을 하나님께 빌 수 있다.

7) 맞지 않는 준비법은 적함하게 바로잡았다.

지혜 9:18 당신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을 > 당신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을⁵⁾

8) 명령형

직접명령은 ‘-아/어라’ 꼴을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소제목도 이를 따름) ‘-거라, -너라’ 등의 명령형에서만 예외를 인정한다. (“사탄아, 물러가라!”) 금지를 나타내는 명령어 “말라, 마라, 말아라”는 문법 규칙을 따라 ‘마라’로 적는다.⁶⁾

시편 105:4 그의 걸을 떠나지 말아라. > 그의 걸을 떠나지 마라.

호세 2:4 배신한 이스라엘을 고발하라 > 배신한 이스라엘을 고발하여라

호세 12:1 소제목: 돌아 오라 > 돌아오너라

바룩 4:14 시온의 이웃들아, 이리 오라. > 시온의 이웃들아, 이리 오너라.

6.7. 인용문⁷⁾

5) 형용사의 준비법에 대해서는 『성서한국』 1993년 12월호, 36-38 참조.

6) 『표준국어대사전』(2035쪽), “말다³⁾”에 대한 설명 참조.

7) 쉼표와 인용법에 대해서는,王大일 엮음, 『말씀의 뜻 밝혀 주시오』에서 “성서 번역과 국어 문체-쉼표와 인용법을 중심으로” 참조. pp. 389-412.

1) 인용문이 문장일 때에는 규칙을 따라 문장부호를 찍는다. 인용조사
이사 6:8 “제가 있지 않습니까?

저를 보내십시오” 하고 내가 여쭙었더니

> “제가 있지 않습니까?

저를 보내십시오.” 하고 내가 여쭙었더니

예레 20:9 ‘다시는 주의 이름을 입밖에 내지 말자.

주의 이름으로 하던 말을 이제는 그만두자’고 하여도,

> ‘다시는 주의 이름을 입밖에 내지 말자.

주의 이름으로 하던 말을 이제는 그만두자.’ 하여도,

예레 22:18 “‘가엾어라 우리 형님, 가엾어라 우리 누님’

이렇게 애곡할 사람이 없으리라.

> “‘가엾어라 우리 형님, 가엾어라 우리 누님.’

이렇게 애곡할 사람이 없으리라.

지혜 12:12 누가 감히 주님께 “이게 무슨 짓입니까” 하고

> 누가 감히 주님께 “이게 무슨 짓입니까?” 하고

2) 인용조사 ‘-고’는 내용에 어울리지 않는 것만 고친다. 다음에 예
를 든 본문들은 직접인용이므로, 내용에 맞게 ‘하고’를 붙였다.

잠언 30:9 배부른 김에, “야훼가 다 뭐냐” 고 하며,

> 배부른 김에, “야훼가 다 뭐냐?” 하며

이사 29:12 “책이 밀봉되었는데 어떻게 읽겠느냐?” 고 할 것이다.

> “책이 밀봉되었는데 어떻게 읽겠느냐?” 할 것이다.

이사 42:22 “돌려주어라.” 고 역성들어 주는 자 없다.

> “돌려주어라.” 하고 역성들어 주는 자 없다.

3) 직접인용의 조사는 ‘-라고’보다는 ‘하고’를 쓴다. 기록의 인용과
같은 경우에는 ‘-라고’를 쓸 수도 있다. 기록의 인용으로 “-라고”를
쓸 때에는 띄우지 않고 맞춤법을 따라서 붙여서 적었다. ‘-고, 라고’
등은 독립적으로 사용되는 낱말이 아니므로 붙여서 적었다.

요엘 4:10 ‘나는 용사다’라고 외쳐라.

> ‘나는 용사다!’ 하고 외쳐라.

요한 9:23 그의 부모가 “다 자란 사람이니 그에게 물어 보십시오”라고 한
것도 그 때문이었다. > 그의 부모가 “다 자란 사람이니 그에게 물

어 보십시오.” 하고 말한 것도 그 때문이었다.

집회 18:33 난하주: (1) 히브리 사본에는 “이중의 가난이 뒤따른다” 라고

되어 있다. > (1) 히브리 사본에는 “이중의 가난이 뒤따른다.”라고 되어 있다.

에스 16:11 마침내는 그를 “나의 아버지” 라고 불렀고
> 마침내는 그를 “나의 아버지”라고 불렀고

4) 드러냄표로 쓴 인용부호는 작은따옴표를 쓴다.

이사 60:14 그들은 너를 “야훼의 도읍”이라,
> 그들은 너를 ‘야훼의 도읍’이라,

집회 22:14 그 이름이 바로 “어리석은 자” 이다.
> 그 이름이 바로 ‘어리석은 자’이다.

갈라 2:15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고 이른바 “이방 죄인”은 아닙니다.
>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고 이른바 ‘이방 죄인’은 아닙니다.

5) 표현에 무리가 있는 인용문 속의 이중인용문 또는 삼중인용문을 무리가 없도록 간접인용으로 바꾸고, 문장 수준에서 조정한다.

예레 22:8 “……‘……야훼께서는 어찌하여 이 큰 도읍을 이 꼴로 만드셨을까?—하고 물으면, 9 이 백성이 저희 하느님 야훼와 맺은 계약을 저버리고 다른 신들을 예배하며 섬겼기 때문이지—하고 대답하리라.”

> “……‘……야훼께서는 어찌하여 이 큰 도읍을 이 꼴로 만드셨을까, 하고 물으면, 9 이 백성이 저희 하느님 야훼와 맺은 계약을 저버리고 다른 신들을 예배하며 섬겼기 때문이지, 하고 대답하리라.”

6.8. 문장부호를 적절하게 바로잡는다.

1) 쉼표 줄임: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쉼표나, 맞춤법에서 쓰지 않도록 한 문장 접속부사 뒤의 쉼표는, 줄였다.

시편 112:4 어둠 속의 빛처럼, 정직한 사람을 비춘다.
> 어둠 속의 빛처럼 정직한 사람을 비춘다.

이사 11:10 그 날, 이새의 뿌리에서 돋아난 새싹은
> 그 날 이새의 뿌리에서 돋아난 새싹은

이사 13:7 그리하여, 모든 손의 맥이 다 풀리고
> 그리하여 모든 손의 맥이 다 풀리고

요엘 1:6 그 이빨은 사자 이빨 같고,
암사자의 송곳니 같은 것들이,

7 내 포도원을 짓밟고
 > 그 이빨은 사자 이빨 같고
 암사자의 송곳니 같은 것들이
 7 내 포도원을 짓밟고

2) 쉼표 삽입: 문맥상 쉼표가 꼭 필요한데 없는 경우는 쉼표를 넣어서 문맥의 의미를 분명하게 하였다.

아모 3:14 나를 거슬러 죄짓는 이스라엘을 찾아 가는 날
 내가 베델의 제단에 벌을 내리리라.
 > 나를 거슬러 죄짓는 이스라엘을 찾아가는 날,
 내가 베델의 제단에 벌을 내리리라.

지혜 1:1 지상의 통치자들이여 정의를 사랑하여라.
 > 지상의 통치자들이여, 정의를 사랑하여라.

3) 인용부호 조정
 이사 42:4 기다린다.’ > 기다린다.”

4) 부름말 뒤의 감탄형 문장 부호 조정
 예제 13:3 예언자들아, > 예언자들아!
 시편 113:1 야훼의 종들아 찬양하여라.
 > 야훼의 종들아, 찬양하여라.

이사 41:8 너, 내가 뽑은 자, 야곱아
 나의 친구 아브라함의 후예야
 > 너, 내가 뽑은 자, 야곱아,
 나의 친구 아브라함의 후예야,

6.9. 띄어쓰기

1) 사전의 올림말은 붙이고, 붙여쓰기가 허용된 것은 붙이는 쪽으로 고쳤다.

어쭙지 않거든 > 어쭙지않거든
 잘 되다 > 잘되다
 죄 없다 > 죄없다
 큰 소리 큰 소리
 큰 일 > 큰일
 한 마디 > 한마디

간 데 없이 > 간데없이

2) 사전에 올라 있지 않아도 문맥에 따라 하나의 이름으로 쓰인 곳은 붙인 채로 두었다(땅 이름, 관직 이름, 제사 이름 등). ‘생명나무’ ‘소금바다’와 같이 고유 명사화된 말은 붙이기로 하였다.

이사 22:1 환상골짜기 (이 말은 초판에서도 붙여서 적었던 말이고, 개정판에서도 붙여서 적는 것을 유지하였다.)

이사 34:9 역청 바다 > 역청바다

예레 31:38 모퉁이문까지 (초역을 유지함.)

다니 9:27 희생 제사와 곡식 예물 봉헌을 > 희생제사와 곡식예물 봉헌을

스바 1:10 생선문(초역을 유지함.)

3) 명사 앞에 접두사처럼 붙어서 그것의 재료를 나타내는 말은 붙였다. ‘가죽옷, 불칼’ 등 재료의 성격이 있는 복합어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붙이기로 하였다(예외: ‘낙타털 옷’ 따위). ‘양떼, 소떼’ 등도 붙여 쓰기로 하였다.

다니 10:5 모시옷을 입고 순금 띠를 띠고

> 모시옷을 입고 순금띠를 띠고

4) 사전에 한 낱말로 올랐더라도 통사적인 구조의 결합이라서 붙일 수 없는 곳은 띄운다.

예레 48:20 아르논강 가 사람들에게도

> 아르논 강 가 사람들에게도 (초역대로 ‘강 가’ 띄움.)

예레 51:63 유프라테스강 물 속에 던지시오.

> 유프라테스 강 물 속에 던지시오.(초역대로 ‘물 속’ 띄움.)

요나 3:5:6 굵은 베옷을 > 굵은 베 옷을 (‘굵은’이 ‘베’를 꾸미는 구조이므로, ‘베 옷’을 띄어서 적음.)

5) 통사적인 구조의 결합이라도 사전에 한 낱말로 오른 말은 붙였다.

지혜 8:18 지혜와 말을 주고 받는 가운데

> 지혜와 말을 주고받는 가운데

지혜 8:19 나는 좋은 기질을 타고 난 어린이였으며

> 나는 좋은 기질을 타고난 어린이였으며

집회 45:18 광야에서 들고 일어났다.

> 광야에서 들고일어났다.

6) 사전에 올림말이 없거나 통사적 결합인 경우는 띄어서 적었다.

시편 119:123 당신의 구원을 눈빠지게 기다리오며,

> 당신의 구원을 눈 빠지게 기다리오며,

시편 132:4 눈붙이고 잠들지 못하겠습니다.

> 눈 붙이고 잠들지 못하겠습니다.

이사 14:7 이제 온 세상이 한숨돌리고 평온해져

> 이제 온 세상이 한숨 돌리고 평온해져

이사 16:9 여름과일을 > 여름 과일을

이사 26:18 우리는 임신한듯, 해산하듯 몸부림쳤습니다.

> 우리는 임신한 듯, 해산하듯 몸부림쳤습니다.

이사 40:20 손재간있는 > 손재간 있는

예레 26:23 서민공동묘지에 > 서민 공동묘지에

이사 16:2 새끼새 > 새끼 새

7) 4자 한자어들도 사전에 올리지 않은 말은 띄어서 적었다.

원칙적으로 ‘띄어쓰기’ 규칙은 각 낱말을 띄어서 적는 것을 원칙으로 삼는 것이다. 용언과 보조용언을 붙여서 적는다면, 명사가 앞뒤로 이어져 있을 때에도 붙여서 적도록 하는 것이 형평에 맞는 규칙이다. 그러나 현재의 한글 맞춤법에서, 명사의 경우에는, “한국대학교”와 같은 고유명사나 “만성골수성 백혈병” 같은 전문 용어에 대해서만 붙여쓸 수 있다고 허용하였고, 그 밖의 다른 붙여쓰기 규정이 없다. 규정이 미비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공동번역 성서 개정판에서 복합명사는 국어사전에 올림말로 올라 있는 경우로만 한정하여 붙여서 적고, 사전에 올라 있지 않은 낱말은 띄어서 적었다.

명사 복합어도 동사 복합어와 마찬가지로 널리 쓰이는 말은 한 말로 인식되어 사전에 올라 있고, 자주 쓰이지 않는 경우에는 사전에 올라 있지 않은 경우가 흔히 있다. 또 사람에 따라서 한 말로 생각하거나 두 말로 생각하는 것과 같은 개인차가 있다. 다음에 예를 든 말들도 어떤 사람은 붙이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고 생각할 수 있다. 사전의 올림말을 기준으로 삼은 것은 이러한 개인차를 피할 수 있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이사 40:2 복역기간이 > 복역 기간이

예레 11:3 계약조문을 > 계약 조문을

다니 7:27 천하만국을 > 천하 만국을

다니 8:23 권모술수를 > 권모 술수를

다니 11:10 전쟁준비를 > 전쟁 준비를

다니 11:12 의기양양하여 > 의기 양양하여

다니 12:11 정기제사가 > 정기 제사가

지혜 6:7 대소만물을 > 대소 만물을

출애 25:4 자주빛 양털, 붉은 보라빛 양털, 진홍색 양털, 고운 모시실, 염소털, 5 분홍색 수양 가죽, 돌고래 가죽, 아카시아나무, 6 등잔기름, 향유, 가루향에 넣는 향료,

> 4 자주빛 양털, 붉은 보라빛 양털, 진홍색 양털, 고운 모시실, 염소털, 5 분홍색 수양 가죽, 돌고래 가죽, 아카시아 나무, 6 등잔 기름, 향유, 가루향에 넣는 향료,

창세 49:2 문병왔다는>문병 왔다는

출애 23:1 권세부리는>권세 부리는

어떤 말을 복합어로 생각할지 통사적 결합으로 생각할지는 사람에 따라서 인식의 편차가 있다. 사전을 따르면 하나의 분명한 기준이 생기기 때문에, 어떤 말을 붙이고 어떤 말을 띄울지를 따로 정하지 않아도 되어서 편하기는 하지만, 사전에 나오는 “양털(창세 31:19) 양가죽(유딧 12:15)”은 붙이고, 같은 구조의 낱말인 “수양 가죽” “돌고래 가죽”은 띄어야 하는 불균형이 생겼다.

똑같은 현상이 명사 동사 합성어에서도 생겼다. “문병하다” 같은 말은 붙여서 적을 수 있는 말이지만, 같은 구조의 낱말인 “문병 왔다”는 사전에 올라 있지 않아서 붙여서 적지 않은 것이다. “권세 부리다”와 같은 낱말도, 초판에서와 같이, 복합어로 보고 붙여서 쓸 말로 판단할 수도 있겠으나, 사전에 복합어로 올라 있지 않으며, “권세(를) 부리다”와 같은 통사적 결합에서 조사 “-를”이 생략된 형태로 보고 띄어서 적었다.

이러한 결정은 그 자체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나, 허용규칙을 따라서 동사와 보조동사를 모두 붙여서 적을 경우에, 전체적으로 붙여서 적을 수 있는 말은 모두 붙여서 적는 원칙을 따르는 것인데, ‘동사+동사’는 물론이고, ‘명사+동사’나 ‘명사+명사’의 경우에도 조사나 어미 없이 이어져 있을 때에는 붙여서 적는 것이 균형이 맞는 띄어쓰기이지만, 현재의 띄어쓰기 규칙은 일관성을 지키기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

8) “외래어 표기법”을 따랐다.8)

음역된 외국 강 이름 산 이름 뒤의 ‘강, 산’은 띄우고, 이에 준하여 이름 뒤에 나오는 ‘왕’도 띄우되, ‘-족, -어, -인’ 등은 접미사로 보고 붙였다. 이

8) 『국어 어문 규정집』, 문교부 고시 제 85-11호, “외래어 표기법” 제 3절 제 1항 참조, 대한교과서주식회사, 1988, pp 301-302.

규칙에 따라 나무 이름도 외래어 뒤에 올 때는 띄었다. 이러한 띄어쓰기도 규칙을 따른 것이기는 하지만, “포도나무(판관 9:12) 가시나무(판관 9:14) 송백나무(1열왕 5:20) 무화과나무(시편 105:33)” 등 사전에 올라 있는 우리 나무들은 복합어로 보아서 붙여서 적으면서, 그렇지 않은 외래어 나무 이름들은 띄어서 적는 것도, 띄어쓰기 규칙의 미비함 때문에 생긴 불균형이다.

이사 11:15 유프라테스강을 > 유프라테스 강을

이사 14:28 아하즈왕이 > 아하즈 왕이

이사 15:2 느보산 > 느보 산

이사 17:10 아도니스신의 > 아도니스 신의

이사 30:33 몰록신 > 몰록 신

이사 41:19 올리브나무를 > 올리브 나무를

예레 1:15 예루살렘성과 > 예루살렘 성과

예레 21:9 바빌론군에게 > 바빌론 군에게

예레 31:38 하나넬탑에서 > 하나넬 탑에서

예레 43:9 파라오궁 > 파라오 궁

6.10. 외래어 표기 교정

1) 초중고교 교과서에 나오는 인지명은 교과서 표기를 따랐다(이집트, 페르시아, 에티오피아, 에스파냐, 키프로스 등).

2) 잘못된 음역은 바로잡았다.

출애 6:17 리브나 > 리브니

이사 60:6 스바 > 세바

예레 48:31 키르하레스 > 키르헤레스

시편 60 수산에룻 > 수산 에룻

집회 32:6 에머랄드 > 에메랄드

3)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외래어는 쓰지 않았다.

다니 3:23㉠ 난하주, 223 페이지에 > 223쪽에

4) 하나의 음역 원칙에 따라 음역을 전체적으로 개정하는 문제는 과제로 남겨 계속 검토하기로 하였다.

6.11. 가톨릭용 편집에서는 ‘외경’이라는 용어는 난하주에서도 ‘제2경전’으로 고쳤다. 개신교와 가톨릭의 용어의 차이를 편집에 반영하는 것이다.

6.12. 잘못 표시된 절 위치를 바로잡았다.

마태 12:45 잘 정돈되어 있는 것을 보고 그는 다시 나와 45 자기보다 더 흉악한 악령 일곱을

> 잘 정돈되어 있는 것을 보고 45 그는 다시 나와 자기보다 더 흉악한 악령 일곱을

마태 13:38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사람의 아들이요 받은 세상이요

>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사람의 아들이요, 38 받은 세상이요,

6.13. 각주 정리: 각주 표현에 일관성이 없어, 적절한 수준으로 용어와 문장 형식을 통일하였다.

1) “히브리어 본문, 원문, 본문, 히브리 원문” 등은 “히브리어 본문”으로 통일하였다.

2) “70인역, 그리이스어 번역”은 “70인역”으로 통일하여 적었다. “라틴어 성서”는 ‘불가타 성서’로, ‘시리아어역’ ‘타르굼’ ‘사마리아 오경’ 등은 그대로 적었다.

3) ‘구교’와 ‘신교’는 “천주교”와 “개신교”로 적었다.

4) 문장 형식은 ‘-임’ ‘-함’ 등으로 하지 않고, 정식 문장으로 적었다.

5) ‘종래 성서’는 “개신교에서 쓰는 종래 성서”로 적었다.

6.14. 공동번역의 약자는 천주교와 대한성공회의 약자 체계를 고려하여 각 책의 제목의 첫 두 자로 적었다.

7. 결론

공동번역 성서의 이번 개정은, 개정 원칙에서 밝힌 것처럼 초판 사용자를 배려한 최소한의 개정이었다. 그렇더라도 그동안 사용하면서 발견된 오류를 바로잡은 것이나, 오역을 바로잡은 것은, 늦은 감이 있지만 꼭 필요한 개정이었다. 맞춤법을 바로잡은 것도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말도 익히게 되는 어린 학생들을 위해서 일찍이 했어야 할 작업이었다.

‘띄어쓰기’는 크게 두 가지 원칙밖에 없다. 붙여서 적을 수 있는 말을 모두 붙이는 쪽으로 편집을 하는 방법과, 그 반대로 띄어서 적을 수 있는 말은 모두 띄어서 적는 방법이 그것이다. 이번 개정판에서 ‘띄어쓰기’는, 가독성을

고려하여, 전체적으로 붙여서 쓸 수 있는 것은 붙여서 적는 원칙을 따랐다. 그러나 규칙의 제약 때문에 일관성을 유지하기는 어려웠다. 동사 결합어를 붙여서 적는다면, 같은 원리로, 조사가 없이 앞뒤로 이어서 사용된 명사어들도 붙여서 적을 수 있어야 하는데, 현재의 맞춤법 규칙은 그런 일관성을 배려하지 않고 있다.

사전을 기준으로 복합어를 정하는 것은, 개인의 저술이 아닌 경우에,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서는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사전의 울림말을 따르기 때문에 생기는 불균형도 있었다. 이러한 아쉬움을 기록으로 남기는 이유는, 맞춤법 규칙의 보완을 기대하는 마음과, 『공동번역 성서』의 표기가 현재의 맞춤법을 충실하게 따르고 있다는 점을 나타내고자 하는 마음 때문이다.

이 글은 몇몇 곳을 제외하고는 특별히 각각의 개정 건에 대한 문법적인 설명은 다 하지 않았다. 대부분 기본적인 한국어 문법 규칙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더라도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설명을 하여 주었다.

‘소폭 개정’이라는 원칙 때문에, 손질을 하면 좀 더 부드러워질 수 있겠지만, 현재대로도 틀리지는 않았다는 점 때문에 검토 과정에 개정에서 배제된 본문들이 있었다. 그렇지만, 1977년에 번역이 나온 때로부터 20년만에 이루어진 이번 개정으로, 『공동번역 성서』의 이런저런 미비점이 보완된 것은 참으로 기쁜 일이라고 생각한다. 초판의 서문에서 밝힌 대로 “독자들이 원문을 읽는 사람과 같은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번역한 『공동번역 성서』를 통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한국의 성경 독자들이, 본문의 뜻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란다.

<Abstract>

A Report on the Revised Common Translation

Moo-Yong Jeon
(Korean Bible Society)

This paper reviews the revision process of the *Common Translation* (1977), and classifies the revised details according to the kinds of modifications made to them, such as correcting the text per the Korean orthographic and standard Korean rules, amending the parts where there are incorrectly spelt words and missing letters, restoring the lacunae in the text, and modifying the mistakes made in sentence and word levels.

One point that is always considered during the process of **Korean** Bible translation is whether to translate pronouns into nouns or replace them with other pronouns that could accurately address the meaning of the text. This paper deals with the pronouns that have been seriously discussed during the revision process of the *Revised Common Translation* (2001), and lists the honorifics that have been of issue in the revision process, and the auxiliary words and suffix that have been revised and the reasons for the revision. It also states the adjustments made at the sentence level, including duplicated or triplicated quotations that are difficult to express. In addition, the places where a comma has been either omitted or added were reviewed and the reasons for change were specified.

In the case of words for which it is difficult to determine whether they are compound words or syntactic combinations, their spacing has been decided according to what is stated in the dictionary. The paper further reviews the problems of transliterations, and specifies cases where loan words were replaced with Korean native words. Instead of discussing every detail of the revision work, this paper focuses more on providing an overall picture of the revision.